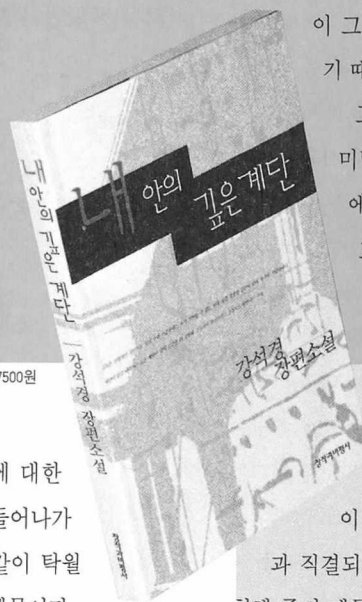


## 중견 문인들이 이룩한 빼어난 문학적 성과

지금보다는 훗날 문학사적으로 재평가 받을 작품들

이동하 | 서울시립대 국문과 교수 · 문학평론가

《내 안의 깊은 계단》  
창작과비평사/A5신/310면/7500원



90년대의 소설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은 대략 30대에 속하는 신진작가 그룹의 재기발달하고 몸 가벼운 작품들이었다. 그 작품들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다음으로 많은 관심을 모은 것은 50대 중진 작가들의 원숙미가 돋보이는 성과들이었다. 이 두 그룹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있는 40대 작가 그룹의 소설들은 대체로 봐 상대적으로 경시당하고 화제의 뒷전으로 밀려나는 양상을 면치 못했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대적 소외 속에서도 40대의 몇몇 진지한 작가들은 묵묵히 그들 나름의 의미 있는 창조작업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화려하게 돋보이지는 않아도 내적으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닌 업적을 축적해 왔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이들이 우리 시대에 이룩한 성과는 신진작가 그룹의 그것에 비해 결코 못하지 않다. 그들의 어떤 작품을 읽다 보면, 훗날에 가서 되돌아볼 경우, 우리 시대에 당장 세상의 주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신진작가 그룹의 화제작들보다도 오히려 이들의 작품이 더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재평가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 때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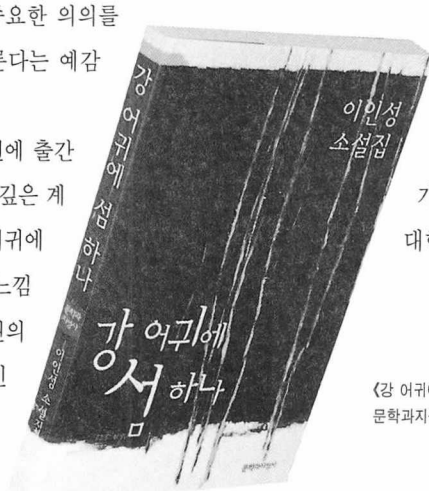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출간된 강석경의 장편소설 《내 안의 깊은 계단》이나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를 읽으면서 갖게 된 느낌도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 두 권의 책은 얼핏보기에 서로 대조적인 면모를 띠는 것 같으면서도 그

내면을 관류하고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의 깊이나 소설을 만들어가는 기량의 높이에서는 똑같이 탁월한 수준을 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강석경의 장편소설 《내 안의 깊은 계단》은 서로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두 명의 남성(강희, 강주)과 두 명의 여성(소정, 진희)을 등장시키고 그들이 밟아가는 인생행로를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인물 묘사의 노련함과 구성의 정밀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강석경은 이처럼 기법적으로 잘 다듬어진 작품을 만들어 나가면서, 삶이 가진 밝음과 어둠의 양면을 두루 성찰하고 그런 성찰을 작품 속에 적절히 투영시키는 역량도 아울러 보여준다. 그런 성찰이 작품 속에 투영된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소정이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만난 일본 청년 히로를 통해 제시되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적 비전이다. 자칫하면 환상적인 것으로 떨어지기 쉬운 것이 희망적 비전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런 운명에서 벗어나 있는데,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삶이 가진 어둠의 측면에 대한 작가의 깊은 성찰



《강 어귀에 섬 하나》  
문학과지성사/A5신/300면/7000원

이 그 앞에 분명한 모습으로 전제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작품이 지닌 또 한 가지 미덕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고고학에 대한 작가의 지식이 작품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는 사실이다. 특정 분야에 대한 작가의 지식을 소설 속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자칫하면 불필요한 현학의 과시라는 인상을 주기 쉽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것이 이 죽음과 영원의 문제에 대한 성찰과 직결되면서 작품의 주제를 적절히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돋보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편, 일곱 편의 중·단편을 모아 놓은 이인성의 소설집 《강 어귀에 섬 하나》는 비범한 작가적 역량과 치열한 실험정신의 진지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더욱 든든한 것으로 만들어 준 뛰어난 성과다.

전체가 3부로 나뉘면서 유기적인 연계성과 조직성을 확보한 이 일곱 편의 작품들에서 이인성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 온 인간이 성장기에 겪은 혼란과 성인이 돼서 체험한 고통과 미래를 내다보며 느끼는 불안의 심층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통찰한다. 그리고 문학의 측면에서 한국어가 지닌 창조적 가능성의 극대치에 접근한 것 같은 인상을 줄 만큼 밀도 있고 섬세하면서 울림이 깊은 언어로 그 통찰을 형상화한다.

특히 역사의 폭력이 개인에게 미친 파괴적 영향을 그리면서, 인간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철학적 질문을 겹쳐 놓은 중편 〈마지막 연애의 상상〉은 우리 소설문학의 한 극점을 구현한 작품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